

형제운동의 기원과 발전 및 한국으로의 전래

1. 형제운동에 대한 소개

이 글의 목적은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으로 알려진 형제운동(Brethren Movement)의 기원과 발전 및 한국의 형제운동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에 형제운동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¹⁾

19세기 초 영국제도에서 국교회의 개혁에 한계를 느끼고 국교회로부터의 분리 운동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주로 유아세례, 성찬식, 장례식과 관련된 교리적인 문제로, 그들은 분리 이후에 복음적인 독립교회를 세웠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827년에 더블린(Dublin)에서 그로브스(Anthony N. Groves, 1795~1853)가 형제운동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성직자 없이 단순하게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 1832년에 플리머스에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여 외부로 알려지면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브리스톨(Bristol)의 조지 뮐러(George Muller, 1805~1898)와 반스테플(Barnstaple)의 채프먼(Robert C. Chapman, 1803~1902)에 의해서도 동일한 기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이 운동은 선교적 열정을 지닌 형제단에 의하여 곧 영국제도뿐 아니라 해외로도 빠르게 퍼져 나갔다.

그리고 1848년에 개방적인 그룹(Open Brethren)²⁾과 비개방적인 그룹(Exclusive Brethren)³⁾으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일어나면서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48년 이후, 형제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형제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⁴⁾ 그 결과 형제운동은 영연방에 속한 여러 국가와 유럽 대륙, 아프리카, 미국과 캐나다,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수의 교회들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형제단은 1959년에 회심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외의 형제단에서 파송한 매카피(Wilbur Thompson McAfee, 1917~2009)와 제임스(Edwin Arthur James, 1912~1988) 등과 같은 내한 선교사들의 지도로 시작되어서 현재 230여 개의 지교회가 있다.⁵⁾ 그러나 이들은 제도권에서 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⁶⁾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 형제단은 그 뿌리와 교리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동신

- 1) 통상적인 명명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명칭은 이 운동이 시작된 장소 중의 하나였던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그러나 형제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이 명칭이 형제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형제단(Christian Brethren)’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형제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명칭으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 교파나 단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서로 ‘형제’,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불렀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이 운동에 뿌리를 둔 교회나 사람들을 ‘형제단’ 혹은 ‘형제단 교회’라고 표기할 것이다.
- 2) ‘Open Brethren’을 이 글에서는 ‘개방적 형제단’으로 번역하였다.
- 3) ‘Exclusive Brethren’을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비개방적 형제단’으로 번역하였다.
- 4)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형제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단순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하여 개방적 형제단과 비개방적 형제단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 5) 한국에서의 형제단 교회 숫자는 2014년 3월 현재 기준이다.
- 6) 해외의 형제단 중에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사람으로는 초기 형제단의 지도자였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뮐러

회’ 혹은 ‘지방교회’나 ‘구원파’의 아류로 잘못 알려져 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의 형제단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형제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제단은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에게도 교리상으로 나름의 영향을 미쳤으며 복음전도의 열정과 경건한 삶으로 인하여 비록 신학적으로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교파에 속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다. F. F. 브루스(Frederick F. Bruce)가 “많은 수의 초교파적 복음주의 단체들에 대하여 그들이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⁷⁾고 평가한 점을 보더라도 형제단이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로우던(Harold H. Rowdon)도 같은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형제단의 공헌은 그들 숫자의 비율을 넘어섰다. 그들은 성경이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성경의 권위를 지켜냈다. 형제단에 속한 많은 성도가 초교파적 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⁸⁾

위의 글에서 보듯이 형제단은 소수였지만 기독교의 여러 부문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세계 선교에 유의미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형제운동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후예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형제운동이 세계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 기원과 역사, 특히 한국으로의 전래과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하여 영국제도에서의 형제운동의 기원과 전 세계적인 발전, 그리고 한국으로의 전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형제운동을 소개할 때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 형제단은 그들의 다양한 실천과 신앙관, 그리고 지역교회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F. F. 브루스는 “형제단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 형제단 중 아무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확히 같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본다”⁹⁾라고 하였다. 따라서 형제운동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편견을 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여러 형제단 교회도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형제운동의 전반적인 역사와 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George Muller, 1805~1898), 신학자 F. F. 브루스(Frederick F. Bruce, 1910~1990),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5명의 선교사들 중 짐 엘리엇(Philip James Elliot, 1927~1956)과 에드 맥클리(Ed McCully, 1927~1956), 피터 플레밍(Peter Fleming, 1928~1956) 등 3명, 그리고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작시자 조셉 스크리븐(Joseph Scriven, 1819~1886) 등이 있다.

7) Frederick F. Bruce, *Who are the Brethren* (Stulos, 1960), <http://web.singnet.com.sg/~syec/literature/brethren.html> (2013년 8월 15일 검색).

8) Harold H. Rowdon, *The Brethre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Oxford: Lion Publishing, 1977), 520-521; “특히 교회의 일치와 재조직의 시대에 형제단의 공헌과 경험은 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뛰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계속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변함없이 성경의 권위를 고수하였다. 형제단의 많은 회원은 교파의 여러 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복음전도에 적극적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끌게 하였다”(Willam B. Eerdmans, 편, **최신세계교회사**, 김해연 역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89), 656-657).

9) P. Cousins, *The Brethren* (Oxford: Pergamon Press, 1982), foreword.

2. 형제운동의 기원(1)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교파나 특정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초대 교회의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운동들이 있었다.¹⁰⁾ 그러한 운동들 가운데 하나가 19세기 초 영국제도에서 일어난 형제운동(Brethren Movement)이다.¹¹⁾ 당시 무기력해진 국교회 내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성직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독립교회를 세웠다.¹²⁾

이런 배경에서 형제운동은 제도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감독 중심의 성직자 제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성찬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¹³⁾ 그들은 인간중심체제의 조직을 거부하고 공식적인 성직도 부인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는 예배 형태를 추구하였다.

1)더블린

초기의 지도자들 중에서 형제운동의 3가지 원리를 제안한 사람은 그로브스(Anthony N. Groves, 1795~1853)이다.¹⁴⁾ 그로브스가 제안한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떡을 떼 자유가 있다”¹⁵⁾는 것이다. 그는 1827년 부활절 기간에 더블린에서 이 원리를 벨렛(John G. Bellet, 1795~1869)에게 말하였으며,¹⁶⁾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안수 받은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교파와 교단을 넘어선 ‘연합’이다. 그는 당시 국교도와 비국교도, 그리고 비국교도들 사이에 있는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꿈꾸고 있었다. 즉,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브스가 깨달은 세 번째 원리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minister)’가 될

10) “형제운동은 권위, 전통 또는 형식 보다 성경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W. Blair Neatby, *A History of the Plymouth Brethre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1), 3).

11) 로우던(Harold H. Rowdon)은 형제운동이 처음에 한 분파(sect)로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한 종파(denomination)로 발전했는데, 그것은 이 운동이 진행되면서 설교자들이 예배당 건물에서 설교하는 전통적인 양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Harold H. Rowdon, *Who are the Brethren And Does It Matter* (Exeter: Paternoster Press, 1986), 14).

12) 이들은 매주 성찬식을 행하고 개인적인 신앙을 확인한 후에 침례를 주었으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애는 비성직자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운동이 뻗어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13) 조효근, **세계기독교평사(중, 근세)** (서울: 도서출판 들소리, 1988), 206.

14) 그로브스는 치과의사로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으나 신실한 복음주의자가 된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였다. 1826년에 선교사가 되려고 성직 임명을 받기 위하여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간절히 바라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국교도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에서 아일랜드 법정 변호사인 벨렛과 친하게 되었다.

15) “형제단은 사도행전 2:42, 20:7, 고린도전서 10:16, 11:20을 근거로 성찬식을 ‘성찬(Holy Communion)’, ‘주의 만찬(Lord's Supper)’, 혹은 ‘떡을 떼(Breaking of Bread)’이라고 부르며 강조하였다. 그들은 성찬식을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명령된 유일한 예배 행위로 보았다”(H. L. Ellison, *The Household Church* (Exeter: Paternoster Press, 1963), 15).

16) “그로브스가 방금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에게 밝혀졌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함께 모인 그 신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주님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자유롭게 나누며, 사도들이 알려준 실행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떠나시며) 남겨주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매 주일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George H. Lang, *Anthony Norris Groves* (Exeter: Paternoster Press, 1949), 124).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성직 임명에 관한 문제이다. 그로브스는 선교를 앞두고 안수를 받아 성직자가 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다가 트리니티 칼리지와 인연을 끊었다. 그는 사역자가 성직의 안수로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¹⁷⁾ 그리고 자신이 특정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받아 특정 분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명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원하였다.

그로브스가 제안한 3가지 원리를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역은 안수 받은 성직자가 없어도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다”¹⁸⁾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사도들이 시행하였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았다.¹⁹⁾

당시에 크로닌(Edward Cronin, 1801~1882)을 중심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 떡을 떼는 비국교도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있었다.²⁰⁾ 크로닌은 특정 교단에 속하기 위하여 다른 교단과 단절해야 한다는 당시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는 원리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1829년 이 모임에 허친슨(Francis S. Hutchison, 1802~1833)이 합류하면서 더블린의 변화가에 자리 잡은 피츠윌리엄 스퀘어(Fitzwilliam Square) 9번가인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모임을 갖도록 하였다. 허친슨은 “누구든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성찬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²¹⁾고 하였다. 허친슨은 이 모임에 벨렛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벨렛을 통해서 다비(John N. Darby, 1800~1882)와 그로브스의 친구인 파넬(John V. Parnell, 1805~1883)의 그룹이 이 모임에 더해졌다.²²⁾ 허친슨의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6개월 후인 1830년 5월에 파넬은 이 모임을 더 알리기 위하여 장소를 임대하여 이사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형제단은 더블린의 언기어가(Aungier Street)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형제운동은 유사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몇몇 모임이 병합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²³⁾ 이 운동은 어떤 조직이나 교파를 만들거나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이 전통이나 형식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교단적 배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 연합할 수 있다는 열망을 실현하고자 하였다.²⁴⁾ 그들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7)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성직 임명도 성경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산이 제거되는 경험이었다. ...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나 자신의 자유에 관하여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F. Roy Coad, *A History of the Brethren Movement*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1), 22.

18) “어떤 목사나 인간이 세운 사역자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신대로 단순하게 모여야 한다”(Henry Groves, *Memoirs of Lord Congleton* (London: John F. Shaw & Co, 1884), 15); 바실 윌리(Basil Willey) 교수는 이 계시가 형제운동의 기초라고 말하였다.

19) 그로브스는 1829년 6월에 선교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바그다드(Baghdad)로 떠났기 때문에 더블린에서는 형제단의 형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초기 형제운동과 일치하였으며, 그 후 세 차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형제단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뿐만 아니라, 형제운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로브스를 형제운동의 원리를 제안하고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 그들은 로우어 펨브로우크가(Lower Pembroke Street)에 있는 크로닌의 집에서 모였다.

21) Clarence B. Bass,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90.

22) 파넬은 당시에 윌리엄 스톱스(William J. Strokes, 1807~1881), 패터슨(Patterson), 그 외의 여러 사람들과 허친슨의 집에 합류하기 전부터 주일에 떡을 떼는 모임을 갖고 있었다.

23)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쉽지 않으나 더블린에서 실제로 떡을 떼는 시기는 1827년에 윌슨의 집에서였고 그후에 크로닌의 집으로 옮겨졌다.

24) 초기의 지도자들은 자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성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3. 형제운동의 기원(2)

1827년에 더블린에서 시작된 형제운동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다. 그 중 1832년에 플리머스, 브리스톨, 반스테플에서도 동일한 기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이 운동은 선교적 열정을 지닌 형제단에 의하여 곧 영국제도뿐 아니라 인도,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해외로도 빠르게 퍼져 나갔다.

1) 플리머스(Plymouth)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이름은 플리머스가 당시 형제운동이 일어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였고, 이곳에서 그들의 독특한 교회의 모습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아일랜드의 성직자였던 다비는 더블린에서 시작된 형제운동을 여러 지역으로 널리 전파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사람이다.²⁵⁾ 그는 벨렛을 통하여 그로브스를 알게 되었고, 더블린의 모임에도 참여하였다. 다비는 복음주의로 회심한 뉴턴(Benjamin W. Newton, 1808~1899)²⁶⁾의 초청으로 플리머스에 왔다. 거기서 1830년에 위그람(George V. Wigram, 1805~1879)²⁷⁾과 홀(Percy F. Hall, 1804~1884)²⁸⁾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위그람이 1831년 12월에 랠리가(Raleigh Street)에 구입한 예배당에서 그의 제안으로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더블린에서와 같은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후 형제단 모임이 1832년 1월부터 공개적으로 플리머스에서 출현하게 되었다.²⁹⁾

형제운동은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기 지도자들의 이상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어 서서히 자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임에 영국의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이 합류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1840년에는 천 명의 신자들로 늘어나서 에브링턴가(Ebrington Street)로 옮겨갔다. 이처럼 플리머스교회가 성장하면서 ‘플리머스 형제단’은 영국 분파의 거의 피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³⁰⁾

25) 다비는 아일랜드계의 성공한 사업가인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1819년에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를 졸업하였다. 그후 1822년에 아일랜드 상법부의 변호사가 되어 법조계에서 출세가도에 있던 중에 회심하여 1825년부터 강력한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1825년에 국교회의 집사(deacon)직을 임명받은 후 더블린의 대주교 매기(William Magee)에 의하여 위클로우(Wicklow)의 칼라리(Calary)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거칠고 험한 지역을 오가며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작은 집에 살면서 끈기 있게 전도하였다. 뉴턴은 그의 헌신적인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로마가톨릭 소작인들은 그를 거의 중세의 성인으로 우러러보았다고 하였다. 다비는 그의 열성으로 인하여 그 당시 일주일에 600명에서 800명 정도의 로마가톨릭교도들이 개신교도가 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헌신으로 일 년 후 1826년 2월 19일에 그는 매기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교회의 성직자로 임명되었다.

26) 뉴턴은 데본포트(Devonport)의 웨이커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 국교도로 자랐다. 그는 1824년 17세의 나이에 옥스퍼드의 엑스터 칼리지(Exeter College)에 입학하였고 1829년 최우수 성적으로 학위를 얻었다.

27) 아일랜드계 부유한 상인의 20번째 아들로 태어난 위그람은 옥스퍼드에서 뉴턴의 친한 친구였다. 그는 근위대에서 근무하다가 회심한 뒤에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퀸스 칼리지(Queen's College)에서 공부하였다.

28) 홀은 해군 사령관(Commander)의 지위에 올랐으나 사임하고 플리머스에 주둔한 해안경비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초기에 홀은 야외 전도와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플리머스 형제단에 들어오는데 공헌하였다.

29) 엠블리(Peter L. Embley)는 그들이 공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첫날은 매매가 완료된 이후 1832년 1월로 보았다(Peter L. Embley,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Plymouth Brethren* (Cheltenham: St. Paul's College, 1966), 72).

30) 이 모임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더하여지면서 이 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 엑스터 칼리지의 연구원(Exeter College Fellow)이며 복음주의자인 해리스(James L. Harris, 1793~1877), 성케인(St. Keyne)의 학장이었던 보레이스(Henry Borlase, 1806~1835), 웨스트 컨트리(West Country)의 목사 힐(Richard Hill, 1799~1880), 저명한 원어학자 트레켈레스(Samuel Prideaux Tregelles, 1813~1875) 등이 있다.

3) 브리스톨(Bristol)

브리스톨은 보육원 사역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 뮐러(George Muller, 1805~1898)³¹⁾와 헨리 크레이크(Henry Craik, 1805~1866)³²⁾의 사역으로 개방적 형제단의 주요 원칙들이 세워지고 형제운동이 꽃을 피운 곳이다.³³⁾ 조지 뮐러는 1829년 가을에 런던에서 크레이크를 통하여 그로브스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 1월에 성직 임명에 대하여 그로브스와 같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즉 선교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전통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때 어떤 조직으로부터 받는 정기적 봉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³⁴⁾

이 시기에 조지 뮐러는 신약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훗날 개방적 형제단의 주된 원칙들을 채택하였다. 즉, 신자의 침례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매주 성찬식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성찬식이나 교회의 모임에서 어느 성도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므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³⁵⁾

이러한 원칙에 따라 1832년에 크레이크와 조지 뮐러를 중심으로 브리스톨의 베테스다(Bethesda)교회에서 7명의 교회공동체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든 전통과 형식을 떠나서 성경에 나오는 방식대로 모이기로 하였다. 조지 뮐러와 크레이크의 헌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다. 1898년 조지 뮐러가 죽었을 때 베테스다 1개의 회중은 10개의 회중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6개 회중은 독립하였고, 나머지 4개 회중은 1,200명이 모였다. 이처럼 브리스톨의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 형제단의 중심지가 되었다.

3) 반스테플(Barnstaple)

반스테플은 사랑의 사도로 널리 알려진 채프먼(Robert C. Chapman, 1803~1902)³⁶⁾이 사역하였던 곳이다. 그곳에서 채프먼은 노동자들의 숙소에 거처를 마련하고 모든 방문자를 위하여 집을 개방하였다. 그는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브리스톨에 있던 조지 뮐러와 크레이크의 교회와 유사한 교회의 형태로 만들었다. 채프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많이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의 큰 뜻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채프먼은 자신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그의 거룩한 삶과 인품으로 개방적 형제단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형제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또한 반스테플은 형제운동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다.

31) 조지 뮐러는 1825년 11월에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런던으로 와서 1829년 3월에 런던 유대인협회(London Jews' Society)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해 7월에 테인머스(Teignmouth)에서 스코틀랜드 국교회(Church of Scotland) 목사의 아들인 크레이크를 만났다.

32) “크레이크는 세인트 앤드루(St. Andrew's) 대학을 졸업한 후, 엑스터에서 그로브스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1826년 8월부터 1828년 봄까지 그의 신학공부를 돕고 있었다. 그는 1828년 6월부터 테인머스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1829년에 조지 뮐러를 만났다. 그들은 그 후 37년 동안 변함없는 우정으로 동역하였다”(Coad, 37).

33) 조지 뮐러가 1834년에 세운 성경지식협회(The Scriptural Knowledge Institution for Home and Abroad)는 교육과 선교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34) 조지 뮐러는 1830년 10월에 그로브스의 누이인 메리 그로브스(Mary Groves)와 결혼하였다. 그는 결혼 직후에 목사의 봉급을 제공하는 좌석료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자신들을 위한 헌금 상자를 예배당에 두고 회중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지하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35) 그로브스와 크로닌도 모든 신자에게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것과 성찬식의 침례를 성직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36) 채프먼은 1823년에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는 런던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신의 소유를 모두 기부하고 반스테플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 그는 5개 국어로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었다(W. H. Bennet, *Robert Cleaver Chapman of Barnstaple* (Glasgow: Pickering and Inglis, 1902), 12).

4. 형제운동의 발전

1) 형제운동의 초기 확산

더블린에서 태동한 형제운동은 플리머스와 브리스톨, 그리고 반스테플을 중심으로 1830년대에 주변의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어서 곧 영국제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엠블리는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1840년 중반에 영국에서 형제단에 속한 사람들이 약 6천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³⁷⁾ 해외로는 1829년 그로브스의 바그다드 선교를 필두로 인도,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으로도 뻗어 나갔다.³⁸⁾ 그리하여 형제운동은 곧 전세계로 퍼져 나갔고 그 결과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형제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2) 형제운동의 분열

급속하게 성장하던 형제운동은 1848년에 이르러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³⁹⁾ 1845년 말 플리머스에서 다비는 뉴턴과 종말론의 차이와 지도력의 문제로 따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⁴⁰⁾ 초기의 뜨거웠던 형제운동의 이상은 두 사람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었고 이 논쟁의 결과로 뉴턴이 떠나게 되었다. 그후 다비는 뉴턴과 함께 하였던 우드폴 형제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조지 윌러와 크레이키 사역하던 브리스톨의 베데스다교회가 악으로 오염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다비는 브리스톨의 베데스다교회 전체를 제명한다는 ‘베데스다 회람’을 돌렸고, 그 결과 다비를 따르는 ‘비개방적 형제단(Exclusive Brethren)’과 그렇지 않은 ‘개방적 형제단(Open Brethren)’으로 나누어졌다.⁴¹⁾

3) 개방적형제단과 비개방적형제단의 구분

형제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형제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방적 형제단과 비개방적 형제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방적 형제단에 속했던 F. F. 브루스는 “형제운동은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 초기부터 뚜렷한 두 개의 구별된 운동이 있었고, 이 두 운동이 일시적으로 함께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은 표면적이었다”⁴²⁾고 하였다. 코드도 “사람들이 다비와 다비주의의 부정적

37) Embley, 156.

38) 특히 스위스, 프랑스, 독일, 캐나다 및 미국으로 전파된 것은 다비가 지칠 줄 모르는 전도의 열정으로 광대한 지역을 여행하며 선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비의 활동으로 유럽의 여러 교회가 ‘다비파(Darbyites)’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형제운동은 영국과 영연방으로부터 미국과 캐나다까지 널리 전파되었다.

39) 형제단의 분열은 다비의 독특한 교회론에 기인한 것이다. 다비는 기존 교회가 ‘파멸’의 상태로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오직 심판 아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파멸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따로 모여야 한다는 그의 분리주의적인 독특한 교회론을 내세웠다. 이처럼 다비의 교회론이 형성되어 가면서 그는 초기의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정신보다는 ‘악으로부터의 분리(separate from evil)’라는 교리를 강조하였다.

40) 그후 1847년에 뉴턴의 강의에서 성육신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가 발견되면서 뉴턴은 플리머스를 떠나게 되었다. 뉴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다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1) “그 후 다비의 권위는 다비파 형제단의 지도자로서 확고한 것이 되어 누구도 그를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었다”(Neatby, 216); 다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헌신적인 선교사, 탁월한 저자였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사도적 소명감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지나친 권위를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2) Harold H. Rowdon, *The Origins of the Brethren* (Glasgow: Pickering and Inglis, 1967), xii; 이거(Jonathan M. Yeager)는 “플리머스 형제운동은 반드시 두 개의 구분되는 운동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학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Jonathan M. Yeager, "The Roots of Open Brethren Ecclesiology: A Discussion of the Nature of the Church Compared to the Ecclesiology of the Darbyite Brethren, 1825-1848" (Th.M. diss., Regent College, Vancouver, 2006), 7).

영향으로 형제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⁴³⁾고 지적하였다.⁴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베데스다 회람’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결정에 대하여 ‘교회들의 조직적 연합체를 추구하는 중앙집권이나, 혹은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나’ 하는 교회론에 대한 차이에 있다. 개방적 형제단은 지역교회의 독립을 인정하며 교회를 치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장로를 세우고 칙례를 행한다. 반면에 비개방적 형제단은 개별 교회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통제조직 아래 ‘한 몸 된 교회’라는 원리를 고수한다. 또한, 개방적 형제단이 자신들과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도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비개방적 형제단은 기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따로 모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⁴⁵⁾

엠블리는 “그로브스가 열망하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추구하던 성찬식은 비개방적 형제단보다 개방적 형제단에서 더 깊이 있게 실현되었다”⁴⁶⁾고 주장하였다. 교회사가인 오르(James Edwin Orr)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형제단의 중립적인 관찰자는 누구든지 개방적 형제단이 형제운동의 진리와 실천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알 수 있다. … 그들은 영국 교회의 복음주의적 무리와 많은 교파에까지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⁴⁷⁾고 하였다.

4)분열 이후의 발전

형제단은 분열 이후에 두 부류로 발전하게 되는데, 비개방적 형제단은 다비의 영향력과 함께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다비의 지도 아래 그가 세상을 떠난 1882년에는 전 세계에 1,5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1881년부터 비개방적 형제단은 분열이 일어나서 5번의 분열을 겪는다.

개방적 형제단은 1859년 부흥의 물결을 타고 순회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영국제도 전역에 더욱 확산되었다.⁴⁸⁾ 그들 가운데 얼스터(Ulster), 글래스고(Glasgow)는 형제단 사역의 강력한 중심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⁴⁹⁾ 1959년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제도에 1,7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형제단 선교사들은 해외로도 영연방을 비롯하여 유럽, 서인도제도,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등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나 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였다.⁵⁰⁾ 이처럼 형제운동은 일부 지역에서 잠시 지나가는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운동이었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43) Coad, 221.

44) 일반적으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방적 형제단과 다비를 따르던 비개방적 형제단을 같이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결과 형제단에 대해 혼동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났다. 베스는 **세대주의란 무엇인가**에서 형제운동에 대한 그 책의 ‘역사적 개요와 교회론의 분석’은 비개방적 형제단에만 해당하며 ‘다비의 교회론을 개방적 형제단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Bass, 121).

45) 분열 이후 비개방적 형제단의 많은 성도는 개방적 형제단과의 교제를 지속해서 단절하였다.

46) Embley, 203.

47) James Edwin Orr, *The Light of the Nation: The Paternoster Church History* (Exeter: Paternoster Press, 1965), 94.

48) 1850년대에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작은 독립교회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교회들이 형제운동과 연관되면서 형제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1859년 웨일스와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으로 회심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였다.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의 제약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형제단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다. 개방적 형제단은 이 부흥 운동에서 받은 자극으로 20년에 걸쳐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게 되었다.

49) 순회 전도자 중에 맨체스터(Manchester) 감리교 집안의 아들이었던 무어하우스(Henry Moorhouse, 1840~1880)는 1861년에 회심하였는데, 그가 시카고교회에서 했던 설교와 무디(Dwight L. Moody)에게 영향을 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50) 로우던은 초기 형제단이 ‘믿음 원칙(faith principle)’이라는 자신들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서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 선교사들에게는 믿음과 기도만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Rowdon, *Who Are the Brethren*, 43).

5. 형제운동의 교리적 특성

개방적 형제단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처럼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다. F. F. 브루스는 성경교리에 있어서 개방적 형제단은 교회사에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⁵¹⁾ 그들은 성경의 모든 정신을 옹호하면서 순수한 복음주의적⁵²⁾ 성격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⁵³⁾

1) 신학적 특성

형제단에서 발견되는 독특성은 세대주의(世代主義, Dispensationalism)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비와 개방적 형제단의 지도자들 간에 세대주의가 다르게 이해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비는 ‘파멸된 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개방적 형제단의 지도자들은 지상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 개방적 형제단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연합하는 공통된 목적을 향하여 함께 일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독교 교파를 인정하였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개방적 형제단과 비개방적 형제단 양쪽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이러한 종말론의 영향으로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다.

2) 실행적 특성

형제단을 특징짓는 요인은 F. F.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교리적인 것보다는 실행적인(practical) 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⁵⁴⁾ 그 중에 형제단의 두드러진 점으로 침례와 성찬식, 비성직자주의와 연합의 원리를 손꼽을 수 있다.⁵⁵⁾ 초기 형제단은 이러한 교회적인 관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약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적용하며 성경을 연구하였다.⁵⁶⁾ 즉, 초기 형제단은 기존 교회의 제도화된 규범이나 전통보다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51) “이들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확고히 붙들고 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신앙과 삶의 기반이 되는 절대무오한 성경’에서 교리와 믿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선포하고 있다”(Bruce, *Who are the Brethren*).

52) 베딩턴(David Beddington)은 영국의 복음주의에 대해 정의하기를 ‘18세기부터 성공회에 소속되었거나 분리되었거나 상관없이 회심주의(conversionism), 활동주의(activism), 성서주의(biblicism), 십자가중심주의(crucicentrism)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다(David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London: Unwin Hyman, 1988), 1-19); 이러한 특징은 형제단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들은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필요함을 믿었고(conversionism),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에 헌신했고(activism), 성경의 교리들에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추구했고(biblicism),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주제로 끊임없이 돌아왔다(crucicentrism)(John Barber, *Who are the Brethren* (West Sussex: The Brethren Archivists and Historians Network, 2001), 20).

53) 아이언사이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형제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54) Bruce, *Who are the Brethren*.

55) 쇼트(A. R. Short)는 초기 개방적 형제단을 구분하는 공통된 특징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그것은 믿는 성도의 침례, 매주 순서가 짜여있지 않은 성찬식(unstructured communion), 안수받은 임명직 목사의 부재,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에 대하여 개방된 성찬식이다(A. R. Short, *The Principles of Open Brethren* (Glasgow: Pickering and Inglis, 1914), 77).

56) 그로브스는 사도들의 관례를 따르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순종하려고 하였다. 조지 윌러와 크레이도 교회의 규범을 알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Yeager, 49).

첫 번째로, 형제단은 침수(浸水)에 의한 침례를 준다. 초기 개방적 형제단은 유아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접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개방적 형제단은 당시의 침례교와 같은 입장으로 자신은 신자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여겼다.⁵⁷⁾

두 번째로, 형제단을 구별하게 하는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매 주일에 실행하는 성찬식이다. 그들에게는 성찬식이 예배의 중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제단의 성찬식은 안수 받은 성직자 없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그 예배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주었으며, 그래서 성직자 계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짜인 규칙과 계획에 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진행되는 자유로운 열린 예배방식이라는 점이다. 성직자가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을 선택하거나 기도하도록 모든 남성 신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사역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찬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형제단의 성찬식은 누군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는 없으나 오랜 전통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⁵⁸⁾

세 번째로, 형제단은 안수 받은 성직자를 두지 않았다. 그들은 인위적인 제도와 전통에서 오는 권위나 자격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영적 은사를 더 소중히 여겼다.⁵⁹⁾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성직자의 사도적 계승을 지지하는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⁶⁰⁾ 그래서 계급 구조를 만드는 성직자를 거부하면서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직자가 없는 대신에 개방적 형제단에서는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한다.⁶¹⁾ 형제단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많은 개신교 교회의 장로와는 다르다. 그들의 역할은 개신교 교회의 목사가 하는 일과 같다.⁶²⁾

네 번째로, 초기 개방적 형제단은 자신들이 발견한 신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전(全) 기독교적인 연합을 추구하였다. 그로브스는 “나로서는 한 파당에 속함으로써 나 스스로 다른 이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³⁾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개방적 형제단도 비개방적 형제단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의 연합의 원리는 점점 흐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개방적 형제단도 지금은 비개방적인 경향을 띠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자신들의 교제권 안에만 머물러 있다.

57) 비개방적 형제단의 지도자인 다비는 유아세례를 지지하였다.

58) 초기의 개방적 형제단은 교파와 관계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였다(Gordon Willis and Bryan Wilson, *Patterns of Sectarianism*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67), 244).

59) 조지 윌러와 크레이크는 그들의 교회에서 그들이 유일한 성직자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형제단에서는 안수받은 성직자 없이 성찬식과 침례식을 행한다.

60) 오늘날 일부 형제단에서는 ‘목사’라는 칭호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성직자 개념의 목사가 아니라 F. F. 브루스나 그로브스의 견해와 같이 은사적인 면에서와 지역교회를 대표한다는 면에서이다(Bruce, *Who are the Brethren*).

61) 형제단에서는 한 사람의 성직자에 의한 일인 목회가 아니라, 복수의 장로들에 의하여 영적인 필요가 공급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초기 형제단은, 행 14:20; 빌 1:1; 딤후 1:5의 말씀이 복수 장로제도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비개방적 형제단의 다비는 그의 ‘파멸된 교회론’에 따라 장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62)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인도하고 먹인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보살핌을 주면서 위로하고, 삶의 문제들에 조언하며 치료한다.

63) 그로브스는 한 분파에 속하기를 거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유는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하나가 되는 연합의 원리를 이루기 위하여서였다(E. H. Broadbent, **순례하는 교회**, 이치일 역 (서울: 전도출판사, 1990), 417); 이것은 다비가 주장하는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한 연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6. 한국의 형제운동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은 1959년에 회심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8년을 전후하여 부평에 있는 미군교회(ASCOM Chaple)에 영어를 배우러 갔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군 병사들의 신앙이 전해지고 그들이 개방적 형제단의 선교사들과 연결되면서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이 시작되었다.

1) 한국으로의 전래과정

매카피(Wilbur Thompson McAfee, 1917~2009)⁶⁴⁾는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형제단 선교사이다. 그는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한국 농촌 계몽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남사중학교를 설립하였고, 경기도 마송군 오산읍에 오산기독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며, 1974년에는 경기도 사후동에 무료요양소를 개설하여 결핵 환자와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역을 하였다.⁶⁵⁾

매카피의 복음사역을 살펴보면, 1961년에 12명이 경상남도 거창 장팔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후에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는 1963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주하여 사후동에 선교학교를 개설하여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농촌운동과 선교사명을 일깨워서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였다.⁶⁶⁾ 또한, 매카피는 1965년 미국으로부터 한국 엠마오성경통신학교를 인가받아서 문서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미국의 선교기관인 CMML(Christian Missions In Many Lands, Inc.)의 지원으로 보건사회부 한국기독교 선교부를 승인받아 의료선교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한국 선교를 위하여 20년을 헌신한 매카피는 건강이 악화되어 1979년에 귀국하였다가 2009년에 생애를 마감하였다.

에드윈 제임스(Edwin Arthur James, 1912~1988)⁶⁷⁾는 웨일즈 북부의 뱅고시(Bangor City)에 있는 센터럴홀(Central Hall)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62년 5월에 50세의 늦은 나이로 일본을 거쳐 부산에 상륙하였다. 제임스는 그곳에 마중 나온 매카피를 따라 거창에서 잠시 머물다가 8월에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평의 미군부대에서 회심한 청년들과 1962년 10월부터 장충동에서 모이기 시작하였다.⁶⁸⁾ 이것이 서울에서 세워진 첫 번째 형제단 교회인 노량진교회의 전신이며 시작이었다. 제임스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3년까지 대형천막과 조립식 의자를 자신이 직접 설계하여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전국에 순회집회를 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자 세계 곳곳에서 여러 선교

64) 매카피는 1917년 미국 캔자스(Kansas) 주의 가아넷(Garnet)에서 출생하여 37세에 회심을 경험하였다. 그는 가난한 한국의 영혼들을 위하여 1960년 4월에 홀트 아동 복지재단 신축과 경상남도 거창의 거창고등학교 신축 감리사로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해 10월에 미국 클레어몬트(Claremont)교회와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교회가 그를 한국 선교사로 천거하였다.

65) 이러한 헌신의 결과로 1977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선교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66) 이 선교학교에서 1기생 7명, 2기생 9명, 3기생 9명을 비롯하여 5기까지 훈련이 이어졌다. 당시에 학생들은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학비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인근 지역에 일주일씩 전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선교훈련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지역에 형제단 교회가 설립되었다.

67) 제임스는 1912년에 호주에서 출생하여 1920년에 그의 부모를 따라 영국 웨일스의 뉴포트(Newport)로 이주하였다. 그는 10세에 회심하고 아프리카의 선교 수기였던 ‘야만인들 한 가운데서(In the Heart of Savagedom)’를 읽고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68) 이 청년들은 회심 후 돈의동의 성서강당에서 1896년 노리마쓰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신회와 함께 모이고 있었다.

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협력하였다.⁶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사에서 검증된 복음주의적 운동이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파된 것이다. 한국의 형제단은 이러한 형제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졌고 그들과 같은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형제단과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19세기에 일어난 형제운동의 역사적 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적 형제단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침례를 주고 장로를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지역교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개방적 형제단의 맥을 잇고 있다.

2)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의 전개

한국에서의 형제단 교회는 지방에서는 1961년 경상남도 거창 장팔리에서, 서울에서는 1962년 장충동에서 첫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 후 한국에서 형제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서울 39개, 강원 11개, 경기 60개, 충청 25개, 영남 47개, 호남 44개, 제주 4개 등 2014년 3월 현재, 230개에 달하는 교회가 세워졌으며, 지금도 형제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형제단 교회는 1990년을 전후하여 해외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의 형제단에서 파송된 29명의 선교사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몽골, 호주, 필리핀, 동티모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선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형제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일본, 대만, 인도,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형제단과 국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타문화권 선교에도 협력하고 있다.

3) 한국 교회와 한국 형제단의 관계에 대한 제안

형제운동이 한국에 전하여진 지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왔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 형제단은 기독교 역사에서 입증된 교회이며 교회사가들에 의해서 인정된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단은 한국에서 때때로 오해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형제단이 자신들의 존재를 교계에 알리지 않았기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⁷⁰⁾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존 제도권 교회의 편견도 중요한 원인이다. 형식화와 조직화를 거부하고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단은 제도권의 교단적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계는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러한 소수 무리에 대하여 자신들의 전통과 잣대가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연합과 일치라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대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계에 이러한 순수한 형제운동이 올바르게 알려지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적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함으로써 한국의 복음화에 함께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69) 1965년에 북아일랜드의 센트럴힐(Central Hill)교회의 천거로 윌버트 키크(Wilbert Kirk), 1966년 미국에서 워런 던햄(Warren Dunham) 부부, 찰스화이자(Charles Fizer) 부부, 그리고 윌리엄 롤러(William Roller), 1966년 11월에 네이스웬더(Douglas Neiswender), 존 웨리스(John Ferris) 북아일랜드의 웨스 바(Wes Bar) 부부, 미국의 월트(Walt) 부부, 영국의 존 폭스(John Fox) 부부, 북아일랜드의 존 앤더슨(John Anderson) 부부, 영국의 샤클리(Joyce Shackley), 독일의 요한나 말프리히트(Johanna MalPricht), 빌리 스티븐슨(Billy Stevenson) 부부, 캐나다의 존 거브란트(John Gerbrandt)와 그 외 다수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다.

70) 순수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려는 보수성이 지나쳐서 19세기 초 개방적 형제단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보편성, 즉 연합의 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